

Yun Aiyoung performs installations, sometimes monumental, in which the video plays a predominant part. This medium, discovered when she was still a student at the Beaux-Arts in Paris, has always been her interest for several reasons. The video produces a stream of moving images allowing the movement to be more or less repetitive, it also produces extracts of simple and pure life at universal character.

Furthermore, an image looked upon with certain time gives more depth. The bodies filmed by Yun are mostly naked and natural. They represent an inspiration and a difficult inner life which cannot be replaced by words. Movement, duration, slow rhythm: techniques which carry the viewer somewhere else. Her installations are majestic as if it had to compete with the nature. The only difference is the fact that the nature is tamed, otherwise the installations are artificial, well organized in the exhibition space.

Each exhibition implies the viewer to feel as if they were in a vast building plunged in darkness. The components staged declines a world openly dreamlike, often stuck in its own corner. The world is not closed to others but it looks like a welcoming and comfortable cocoon, favorable to meditation. The mind floats in a second condition while the body walks at the discretion of the installations. Yun sees her work as a subtle blend of elements of reality. Several realities coexist, concrete and natural phenomena are well arranged in order to evoke a parallel world between dream and fantasy.

In recent years, photography has emerged in Yun Aiyoung's works. Still images are used to make us better aware of our belonging in a wider range, which goes far beyond. These short extracts, sometimes from her own videos or installations, prepares the ground for her universe, in which we can remember the serious and relaxing atmosphere.

Yun Aiyoung's works reminds us strangely of the famous Portuguese director Manuel de Oliveira's saying, which defines the cinema as "a saturation of magnificent signs bathing in the light of their absence of explanation."

Thomas Zoritchak

윤애영 작가는 가끔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전시하고, 윤 작가의 전시회에는 비디오 프로젝트가 큰 자리를 차지한다. 그는 파리 보자르를 다닐 때 비디오를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비디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디오는 여러 움직이는 이미지의 흐름을 생산하고, 이 움직임들이 더하거나 덜 반복될 수 있게 하고, 비디오는 또한 단순하고 순수한 삶의 추출물을 생성한다.

또한, 이미지는 보면 볼수록 더 깊은 모습을 제공한다. 윤 작가가 촬영한 신체들은 거의 나체이고, 자연스럽다. 이 신체들은 어떤 단어로 대체되지 못하는 영감과 어려운 내면 생활을 보여준다. 움직임, 시간, 느린 리듬; 이 모든 것이 보는 사람을 상상 속으로 빠지게 한다. 그녀의 작품들은 마치 자연과 경쟁하듯이 위엄 있다. 우리가 그의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은 자연이 마치 길들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녀의 작품들은 인공적이고, 전시회 장소에 언제나 잘 배치되었다.

각 전시회를 통해 윤 작가는 보는 사람을 어두움의 급락한 거대한 건물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연출된 구성 요소들은 꿈 같고 이기적이고 닫힌 세계를 보여주지 않고, 마치 누에고치처럼 편안하고 명상의 유리한 세계를 보여준다. 우리의 마음은 떠다니고, 우리의 몸은 작품들 사이 사이로 끌려 다닌다. 윤 작가는 그의 작품들이 현실 요소로 만든 미묘한 조화라고 생각한다. 여러

현실이 공존하고,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현상들이 잘 배열되어 꿈과 환상 사이의 평행한 세계를 환기시킨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사진작품이 윤애영 작가 작품의 등장했다. 스틸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아주 큰 세상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다. 그의 작품들과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작은 추출물들이 우리에게 진지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기억에 남겨준다.

윤 작가의 작품들은 유명한 포르투갈 감독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의 영화에 관한 발언을 생각나게 한다; “ 화려한 신호들의 채도가 해석 부재로 인한 빛에 입욕”(?).

토마 조리작